

제35회 충청중국포럼 개최

－ ‘한국 청년들의 중국창업전략 _ 중국 4차산업혁명에 맞춰라 ’ －

- 제35회 충청중국포럼이 지난 10월 24일 충남연구원 4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영화 前 과기정통부 글로벌혁신센터장이 “한국 청년들의 중국창업전략 - 중국4차산업혁명에 맞춰라”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그림1> 제35회 충청중국포럼 단체 사진과 고영화 센터장 발표 사진

- 고 前 센터장은 중국은 덩샤오핑의 경제발전 3단계 정책을 통해 빠른 경제성장을 이뤘으며, 다가오는 2026년에는 미국의 GDP를 추월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 최근 들어 중국에서는 유효공급확대를 위한 “중국제조 2025 전략”과 “인터넷+ 전략”을 내놨다고 전하면서, 그 중 “인터넷+ 전략”은 인터넷과 다른 산업을 접목한 신규업종 육성, 인터넷을 활용한 전통산업 업그레이드 등을 실현하여 2025년에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완성하고자 한다고 말하였다.
 - 또한, 고영화 센터장은 2017년 과학기술부가 발표했던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 및 기술프로젝트”와 중국 AI산업을 이끌어가는 “BAT 인공지능 생태계”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 이어서 중국 모바일 페이에 대한 내용도 함께 다뤘는데 고 센터장의 설명에 의하면, 2017년 12월까지 중국 온라인결제 사용자 규모는 5.31억 명으로 2016년 12월보다 5,561만 명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 이러한 중국의 급격한 환경 변화 하에 작년에만 총 607만 개 기업, 하루에 약 1만6600개 기업이 창업할 정도로 중국 청년들의 창업 열풍은 대단하다고 말했다. 중국이 앞으로도 “인터넷+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 4차 산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민간주도 창업 열풍은 지속될 전망이라고 하였다.
 - 오포(OFO)자전거, 어러머(餓了麼)음식배달서비스, DJI드론카메라 등

충청중국포럼 소식

중국 대학생 창업 성공사례를 소개하면서 중국이라는 큰 시장이 주는 사업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 소위 중국 BAT로 일컬어지는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이 3대 기업 성공 신화에 대해 언급하면서 알리바바와 텐센트의 경우, ‘전 세계 기업 시가총액(2017.12.31기준)’ 순위권에 들어있지만, 한국기업들은 순위권 밖임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미국 증시에 상장한 중국 스타트업기업의 수는 121개에 달하지만, 한국은 같은 기간 동안 ‘0’ 개라는 점도 강조하였다. 한국기업으로 알고 있는 ‘라인(LINE)’은 일본기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라인도 일본에서 시작했기에 오늘의 성과를 거뒀을 것이라고 하면서 글로벌시장으로 눈을 돌리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 고 센터장은 강연 말미에 중국에서의 창업 활성화 방안으로 중국 전문가 10만 명 양성, 중국 내 창업 인큐베이션 프로그램 확대, 국내 투자금융사 중국진출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좋은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중국시장에 바로 진출해서 창업하거나, 중국의 유망한 창업기업을 조기에 찾아내서 그 기업에 투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 강연이 끝난 후 종합토론에서 충남도 기업통상교류과 김은숙 전문위원은 최근 충남도에서도 중국창업 플랫폼을 활용한 도내 청년들의 중국진출에 대해 고민이 많다고 말하였다. 향후 KIC센터가 진행하는 연수 프로그램이나 여타 정부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연계해 충남 청년들의 대중국 창업을 도모해보겠다 말하였다.

※ 본 포럼소식에서 사용한 중국 용어는 기본적으로 중국어 발음을 준용하여 표기하였으나 한자의 한국어 발음이 익숙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표기함

문의 :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 (041-840-1175, quanchfu@cni.re.kr)